

남구, 위용 드러낸 '효천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 주민들의 문화 사랑방으로 건립 중인 효천 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가 착공 15개월만에 현대적 감각의 건축물 위용을 드러냈다.

건물 곳곳에 커다란 유리창을 배치해 자연채광을 극대화하고,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구축하는 등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형 건물로 건립된 것이다.

남구는 "관내 4번째 구립 도서관인 효천어울림 도서관과 생활문화

센터로 갖춘 효천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가 마무리됐다"며 "오는 9월 정식 개관을 앞두고 도서관 비품 및 도서 비치,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등 내부 단장에 나섰다"고 밝혔다.

효천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는 관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시설로, 연면적 3천617㎡ 크기에 지상 4층으로 지어졌다. 건립에 소요된 사업비는 91억 4천500만원에 이른다.

남구는 주민들의 복합문화 공간임을 감안해 건축 설계과정에서부터 이용자 편의를 적극 반영했다.

특히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와 어르신 등 이용자의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상 1층에 생활문화센터를 배치하고, 2층부터 4층까지는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 도서관으로 조성했다.

또 내부에 들어섰을 때 확 트인 개방감을 살리고, 자연 채광 및 통

풍이 잘 이뤄지도록 통유리를 사용하는 등 건축물에 자연미를 더했다. 효천문화복합 커뮤니티센터 이용은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이달부터 오는 6월말까지 효천어울림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속히 구축할 방침이다.

또 오는 7월부터 두달간 시범적으로 시설을 운영한 뒤 9월에 정식 개관할 계획이다. /정희태 기자

동구, '다함께 동네 한바퀴' 참여자 모집 생활제조·동네 마실 돌기 등...30일까지 접수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주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생활 속 마을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동구 마을복지. zip' 사업 일환으로 4월부터 6월까지 운영하는 상반기 '다함께 동네 한바퀴'에 참여할 주민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다함께 동네 한바퀴'는 동구의 주요 거점에서 ▲1주일에 2회씩 60분 생활제조 ▲마을 안(內) 걷기 ▲동네 마실 돌기(인문산책길) 등 일상에서 함께하는 생활 운동 분위기 조성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마을복지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동구를 대표하는 걷기 명소 푸른길 공원은 원형광장, 산수문화마당, 동명동 작은 공영장 등 4곳에서 '생활제조와 건강걷기' 참여가 가능하다.

층장22, 동명교회, 단사공원 등 3곳에서는 건강제조와 더불어 주민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동네 마실 돌기가 진행된다.

전문 강사 지도 아래 두암제2근린공원, 학동 천변, 원머리 경로당, 동구문화센터, 용산체육공원 등에서 저녁시간에 체조 교실을 운영할 예정으로 직장인도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정책과 전화(062-608-2557)로 문의.

임택 구청장은 "가족 또는 이웃과 함께 운동하며 건강과 마을복지 공동체의 소중함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 되시길 기대한다"면서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동구 마을복지.zip'의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서구, 마음안심버스 운영

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역 주민들의 정신건강 및 일상회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마음안심버스는 15인승 버스를 개인상담 공간, 스트레스 측정 공간, 휴게공간(담카페)으로 꾸며, 정신건강 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인력들이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총 1천873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303명이 정신건강 심층 상담을 받았다. 서구는 마음건강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맞춤형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했다.

서구는 올해 3월부터 매월 8회 안심버스를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자살률이 높은 시기인 3~5월까지는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마음이 힘든 지역주민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구는 또한 생활터별로 관내 기업체 및 관공서, 생애주기별로 어르신(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심리지원을 원하는 기관, 단체는 서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350-4196)로 문의하면 된다.

/이가영 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외국인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상생·화합의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한 정책의 성과로 제10회 다문화 정책대상에서 영예의 대상 수상했다. /광산구청 제공

광산구, 외국인주민 정책 행안부 장관 대상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외국인주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상생·화합의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한 정책의 성과로 제10회 다문화 정책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이 참여하는 다문화 정책대상은 다문화·외국인주민 정책을 선도하고, 정책 개발에 기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 기관·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대상을 받은 광산구는 인권·안전, 정착 지원, 소통·상생, 참여 확대, 도시 경쟁력 등 여러 분야에서 외국인주민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민선8기 들어 호남권 최초 외국인주민과를 신설, '차별을 없애고 차이를 살리는 문화다양성 도시

광산'을 비전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 큰 주목을 받았다.

광산구는 광주·전남지역의 대표적인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으로 꼽힌다.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유학생, 고려인동포 등 광산구 거주 외국인주민은 2만3천여 명으로, 광주 전체 외국인주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서기만 기자

북구,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는 광주시가 주관한 '2022 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비 1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방세 징수를 제고와 세정업무 발전을 위해 광주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지난해 세정업무 실적에 대해 ▲지방세정 ▲지방세 체납 ▲세외수입 등 3개 분야 10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이에 북구는 평가항목 전반에 대해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지난해 이어 올해 종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북구는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체납 징수기동반, 전 직원 책임징수제, 세외수입

징수실적 보고회 등 다양한 활동과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세 연구동아리도 운영했다.

특히 경기침체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수범시책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한눈에 보는 세무정보 유튜브 영상 제작, 북광주세무서와 세정 서비스 강화 업무협약 등을 통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주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과 지방세정 확충을 위해 직원들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납세편의 제공과 재정확충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전투기 소음피해를 후손 대대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1/3

무안군은 전투비행장 이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영상자료
자세히보기

언론보도 +
[뉴스1 `21.2.2.] ▶민심탐방◀ "군공항 이전 무안군 회생 강요인 돼... 국방부 나서라"
[뉴스1 `21.1.25.] 광주시 전남도 입찰차 '뺑뺑'...군공항 이전 '담보 상태'

범국민대책위원회 +
(* 20.11.24.) 새마을지도자 광주 군공항

No!
진실은 이렇습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무안군민의 희생은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자세히보기 >